나지완·김상현 '1군 복귀' 임박

KIA 타이거즈의 'MVP' 나지완과 김상현이 6월을 기다린다.

마운드를 재정비 한 KIA는 5월 대반격을 노렸지만 타선의 힘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했다. 노련한 김원섭·이종범의 부진속에 지난 시즌 다이너마이트타선을 구축하며 한국시리즈 MVP와 시즌 MVP를 거머쥐었던 나지완과 김상현의 공백도 발생했다.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김상현은 지난 11일 왼쪽 무릎 연골 부분파열로 수술대에 올랐다. 한국시리즈의 스타 나지완은 타격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지난 19일 2군행 통보를 받았다. 위력적인 한방을 보유한 두 선수의 이탈로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KIA는 요동치는 타격 컨디션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악몽같은 5월을 보낸 두 MVP는 뜨거운 여름을 기다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나지완이 먼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광저우행'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면서 복귀 준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미필인 나지완은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을 목표로 지난 겨울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을 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부담감이 더해졌고, 이는 타격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결국 타격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나지완은 2008년 6월2일 이후 처음으로 2군으로 추락했다. 애타게 꿈꿨던 광저우행 꿈이 사라지면서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마음을 비우고 부담없이 야구를 즐기기로 했다.

25일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개막한 2군 인터리그에서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몸을 푼 나지완은 26일 경기에서도 안타와 도루를 하나씩 추가하며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나지완의 엔트리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해결사' 김상현의 재활움직임도 순조롭다. 근력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재활을 준비했던 김상현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타격 훈련도 소화할 예정이다. 수술부위 회복 속도도 빨라 예정된 6월 복귀는 이상무다.

그라운드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는 김상현에게 '자랑스런 아빠'되기라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김상현은 지난 25일 결혼 3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다.

팀의 해결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복귀를 준비하는 김상현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

2009년 팀의 12년만의 우승과 함께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두 MVP. 부상과 부진이라는 장벽을 만났지만 나지완과 김상현이 또 다른 야구 드라마를 그리며 6월을 기다리고 있다.

〈나지완〉

〈김상현〉

나지완 광저우행 부담 떨치고 2군서 홈런포 등 컨디션 조율

김상현 수술 회복 빨라 내주부터 타격훈련…6월복귀 이상무

'부상' 김상훈 재활군으로

주장 김상훈이 재활군 신세가 됐다.

KIA 타이거즈는 26일 왼쪽 장딴지가 좋지 않은 김상훈을 재활군으로 내리고 포수 이성우를 1군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지난 16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 결장했던 김상훈은 부상부위가 완쾌되지 않으면서 이후 4경기에서 지명타자로 출전했었다. 김상훈은 당분간 재활군에 머물며 몸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26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1회전에서 제니아 페르바크(러시아)를 상대로 서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 2회전 안착

프랑스오픈테니스 女 단식

마리아 샤라포바(13위·러시아)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2회전에 올랐다.

샤라포바는 26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여자단식 1회전에서 제니아 페르바크(110위·러시아)를 2-0(6-3 6-2)으로 물리쳤다.

지난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샤라포바는 최근 6연승을 내달렸다.

이 대회에 7차례 출전했지만 2007년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인 샤라포바는 "4~5년 전과 비교해서 체력이나 공격적인 면이 좋아졌기 때문에 클레이코트에서도 해볼 만하다"고 자신했다. /연합뉴스

김연아 "운동에 전념"

'휴식 끝' 31일 토론토 출국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0·고려대)가 두 달 동안의 국내 휴식을 끝내고 훈련 거점인 캐나다 토론토로 복귀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대표 박미희) 관계자는 26일 "김연아가 국내 휴식을 마치고 오는 31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할 예정이다"며 "토론토에서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연아가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 참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김연아의 2010~2011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매년 관례적인 절차여서 출전 여부는 결국 선수의 몫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추신수 나흘만에 솔로포…타율 3할 복귀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나흘 만에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6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장,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99에서 다시 3할대(0.304)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화이트삭스 선발 제이크 피비의 2구째 슬라이더(시속 132㎞)가 가운데로 몰리자 힘차게 퍼올렸다.

타구는 우측 펜스를 넘어 관중석 중간에 가서 꽂혔다.

22일 신시내티 경기에서 홈런 2개를 몰아친 데 이어 나흘 만에 터진 홈런으로 시즌 7호째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제이슨 도널드의 솔로 홈런 등 10안타를 몰아 때리며 화이트삭스에 7-3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동성고 청룡기 4강행 실패

동성고의 청룡기 4강 진출이 무산됐다.

동성고가 2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남고와의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끝에 3-4로 패했다.

5회 강경학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동성고가 8회말 경남고 황태호의 희생플라이로 1-1 동점을 맞았다. 동성고가 10회초 승부치기에서 먼저 2점을 뽑아냈지만 10회말 1사 만루에서 이준명의 우전안타로 3-3 동점을 허용한 뒤,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며 3-4로 역전패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

이세돌 '중국의 자존심' 창하오 또 눌렀다

상하이엑스포 기념 대국

'쎈돌' 이세돌이 한 달 만에 만난 창하오에게 또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세돌 9단은 26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SK배 한중 정상기사 기념대국'에서 중국의 창하오 9단을 맞아 흑으로 169수만에 불계로 이겼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0 상하이엑스포 한국주간'을 기념해 열린 이 대국은 이세돌의 진면목을 보여준 한판이었다.

평범하고 안전한 이창호식 포석으로 초반을 운영해 과연 이세돌의 바둑인가를 의심케 하던 대국은 중반 이후 급박하게 흘러갔다.

중앙 흑돌이 포획 당해 고전에 빠졌던 이세돌은 좌변 흑돌을 끊으려고 끼워온 백돌을 무시하고 중앙을 끼우는 묘수로 전세를 뒤집으며 단숨에 역전 KO승을 이끌어냈다. 번개같은 스트레이트 한방으로 끝나버린 바둑이었다.

지난달 열린 제2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에서 창하오를 3-0 완봉으로 물리치며 우승했던 이세돌은 이번 승리로 4연승을 거두며 상대전적을 11승 6패로 벌렸다. /연합뉴스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10월29일 인천서 개최"

하나은행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하나은행 챔피언십 조인식을 열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대회장인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26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아시아의 메이저대회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세계최고 선수들이 펼치는 멋진 대회를 만들고 국내 유망주들이 LPGA 무대에 진출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02년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부터 3년간 하나은행이 단독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으며 10월29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다.

총상금은 지난해보다 10만달러가 오른 180만달러.

LPGA 투어 상위 랭커 50명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위 랭커 12명 등 총 69명이 출전해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력제자포함), 자산운용관리인력 등
학·석사·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가치

모두가 꿈꾸는 탁월한 선택,당신의선택이 당신의미래를 만듭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60대, 지상 12대

1F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은행/대형음식점/패스트푸드/약국 귀금속/동물병원/핸드폰대리점/키피전문점 등

2F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병의원/한의원/치과/미용,피부관리/커피전문점/당구장

3F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형성
권/장/업/종 입시전문학원/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체육관/기타학원

4F 대단위 유동 인구와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장/업/종 스포츠센타/페밀리레스토랑/스크린골프/학원/기타

폴라리스 분/양/임/대/문/의 062)674-4900